

사흘 후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분은 사망의 줄을 끊으셨고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이로써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원본 위: 그는 살아계시다, 시이먼 두이; 왼쪽 아래: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윌리엄 휘테커, 고지역시 박물관 제공; 오른쪽: 마리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NOU ME TANGERE), 앙베르시디 인드레비치 이바노프(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러시아 박물관/ RUSSIAN SOVIET ART RESOURCE, NY)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물으셨다. “어찌하여 [우느냐?] ...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마리아는 ...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요한복음 20:15~16)

그런 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 20:17)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는 타락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타락으로 필멸과 죽음이 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덕분에 불멸과 영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담의 타락이 없었다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이 완전한 속죄에 관하여 저는 그 일이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압니다.

저는 구주를 증거하는 증인 중 한 명이며, 장차 그분의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만져 보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구원은 그분께서 속죄를 이루시며 흘리신 피를 통해 오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보다 더 잘 알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듯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걷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겟세마네의 힘”, 리아호나, 2011년 4월호, 15~19쪽. [원 기사는 Ensign 1985년 5월호에 게재됨.] 구도점 및 대문자 수정.

이 말씀은 맥콩키 장로가 필멸의 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사도로서의 간증이다. 그는 이 말씀을 남긴 후 2주 후에 별세했다.